

광주시-삼성전자, 지역 스타트업 육성 힘 모은다

창업스테이션서 ‘스타트업데이’
지역 창업기업 50여개사 참여
사업화 협력·투자유치 성과 공유
1:1 매칭 등 통해 실질 성장 지원

광주광역시와 삼성전자가 지역 스타트업 육성에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24일 북구 중흥동 빛고을창업스테이션(STA·G)에서 삼성전자C-Lab,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광주-삼성 스타트업 데이’를 개최했다.

‘스타트업 데이’는 대기업과 지역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 생태계의 실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 창업기업 50여개사가 참여해 기술 발표, 협력사례 공유, 1:1 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광주광역시는 24일 북구 중흥동 빛고을창업스테이션(STA·G)에서 삼성전자C-Lab,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광주-삼성 스타트업 데이’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이광진 답메디 대표는 ‘카메라 기반 비접촉 디지털 바이오마커 측정·분석’ 사업을 소개하며, 삼성전자와 협력 사례를 공유해 주목을 받았다. 답메디는 삼성전자의 센서 OLED 기술을 활용한 심혈압 측정 알고리즘으로 임상 검증을 진행 중이다.

또 △클리어어의 ‘다공성 구조 기반 산소결합 조절 광촉매 기술 개발’ △더디멘션컴퍼니의 ‘제품 디자인을 Text-to-CAD 또는 Sketch-to-CAD로 구현한 AI 소프트웨어’ 등 지역 창업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발표하며 외부 투자자와 산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삼성전자 C-Lab 자문위원이자 국내 최장수 엑셀러레이터 기업인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지역전략산업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2026 C-Lab 아웃사이드(Outside)’

공모전에 대비해 삼성전자 C-Lab과 지역 창업기업 간 1대1 매칭 상담도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4일까지 C-Lab 8기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 광주지역 창업기업이 선발될 경우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기술검증(PoC) 협업, 전용 공간,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필규삼성전자창의개발센터장은“광주시의 창업지원 전략과 발맞춰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도모하고,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광주-삼성 스타트업 데이는 지역 창업기업들의 기술력을 외부에 알리고, 대기업과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sangajeong@jnilbo.com

전남도, 지역경제 선도 유망 중소기업 집중 육성

3년 이상 운영·매출액 20억 이상
자금·판로·마케팅 지원 등 혜택

전라남도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주간 2025년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전남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한 중소기업 중 최근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재무현황, 기술력, 고용창출 성과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실질적 경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용자 한도 상향 및 이자 지원 우대 △판로 확대·수출 마케팅 등 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3년간 전남도 및 시군의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경영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남도의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유망 중소기업을 도 차원의 대표기업으로 집중 관리하고, 향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재도약 기회를 제공, 기업의 자립성과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성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유망 중소기업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일자리 창출과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 주체”라며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세심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유망 중소기업이 전남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시장에서도 활약하도록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3년부터 매년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71개사가 선정됐다.

오지현 기자



롯데백 광주점, GNC ‘1+1 슈퍼워크’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GNC의 전품목 1+1 행사

인 ‘슈퍼워크’ 행사를 27일부터 29일까지 지하1층 본매장에서 진행한다.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해 건강 관리를 위한 상품을 찾는 고객을 위한 이번 행사에서 종합비타민제, 프로바이오틱스, 밀크시슬 등의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더불어 GNC 천지인의 홍삼농축액, 홍삼녹용, 홍삼절편 등의 다양한 홍삼제품 역시 ‘1+1 행사’로 단 3일간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전남중기청, ‘온·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

30일까지 온라인 박람회 진행
내일 DJ센터서 오프라인 행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5 상반기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2025 광주함께 JOB 페스타’ 등 온·오프라인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광주광역시(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전라남도(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와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는 광주시 인증기업, 전남 동부권·서부권 주력산업관 등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 120개사가 이상이 참여해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구직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광주전남일자리박람회.com)를 통해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직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AI자기소개서, NCS 직업역량 진단 등 취업에 도움을 줄 취업지원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전문 컨설턴트가 1대1 피드백을 제공하는 자기소개서 첨삭 컨설팅도 운영 중이다.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62-510-0923)이나 광주전남중기청(062-360-

91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2025 광주 함께 JOB 페스타’가 열린다. 청년, 중장년,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대상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일자리박람회’로 기존의 1대1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현장채용관, 면접·이력서 컨설팅 등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뿐 아니라 일자리정책관, 상생Play관, 내일(job)리셋관 등 맞춤형 부대행사도 풍부하게 준비했다. 구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이력서 등을 지참해 현장을 방문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광주일자리종합센터(062-613-5991~4)나 광주전남중기청(062-360-9147)로문의하면 된다.

박소영 기자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보상접수 30일 마감

1만3034명·2만199건 보상 접수

금호타이어는 오는 30일까지 공장 화재로 인한 자체 피해 보상 접수를 마감한다고 24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17일 광주공장 사고 발생 이틀 만인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광산구와 함께 주민 피해 접수를 진

행했다.

기간 내 접수를 하지 못했거나, 추가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해 곧바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차 추가 접수를 받았다.

총 22일 동안 1만3034명, 2만199건의 피해가 접수,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절차, 필요 서류, 기준 등을 안내했다.

피해 보상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복지동 1층에서, 온라인 접수는 금호타이어 홈페이지 팝업 공지(https://tally.so/r/nrbd5v)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주민들의 쉬운 접수를 위해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은행,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오픈

동의 절차 간소화·자산 연결 확대

광주은행은 최근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생활 전반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흔히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린다.

이번에 선보인 ‘마이데이터 2.0’은 기존 서비스 대비 고객 편의성과 정보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연결 가능 자산의 개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여러 기관의 자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 정보 수집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또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되면서 사용 절차가 간편해졌다.

광주은행은 2021년 7월, 지방은행 최초로 마이데이터 분허가를 획득한 이후,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5년 6월 현재 이용 고객 수는 약 48만 명에 달하며, 고객 중심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제공 중인 주요 기능으로는 △월별 소비 내역을 분석해주는 ‘내 금융 캘린더’ △실제 저축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1억 모으기’ △KCB와 제휴해 본인의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신용올리기’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최권범 기자